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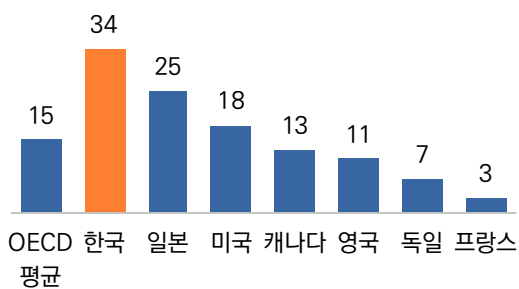
1. 한국 노인의 힘겨운 삶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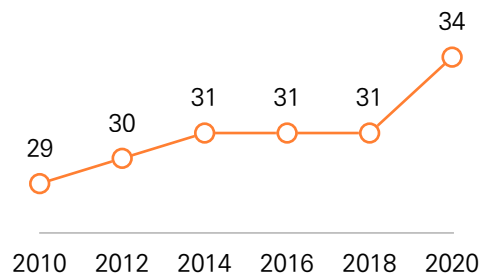
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 34%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→ 그만큼 한국 노인의 삶 힘겨워!

- 2020년 OECD 회원국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 통계에 따르면, 한국이 34%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. 2010년 이후 한국 고령층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, 2020년의 경우 OECD 평균 15%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.
-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 복지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해 그만큼 고령층이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.

[그림] 2020년 OECD 주요국 65세 이상 고용률 (%)



[그림] 한국 연도별 65세 이상 고용률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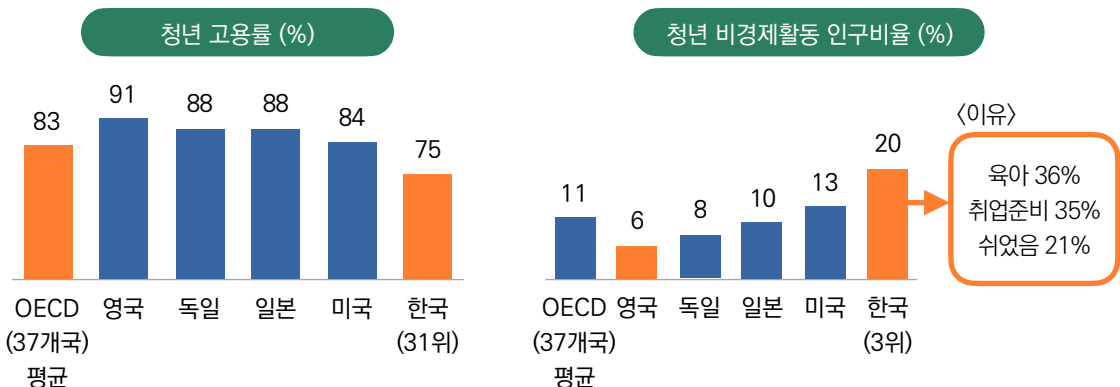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OECD statistics data, '2020 OECD employment' 중앙일보, 2021.11.29. '나이 들어 고달픈 대한민국...빈곤율도 고용률도 세계 1위' (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27624#home>)

**고용률 :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

●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, OECD 37개국 중 31번째로 낮아!

-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회원국의 25-34세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, 2020년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75%로 37개국 회원국 중 31번째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. OECD 평균은 83%이다.
- 또한 한국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%로 OECD 국가에서 3번째로 높았는데, OECD 평균(11%) 보다 2배 가까이 높다.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요 활동으로는 '육아/가사'가 36%, '취업 준비' 35%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, 청년 10명 중 2명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2020년 OECD 주요국 청년(25~34세) 대졸자 고용률 vs 비경제활동 인구비율



*자료 출처 : 한국경제연구원, 보도자료 '청년 대졸자 고용률 75.2% OECD 37개국 중 31위', 2021.11.18.